

대국민홍보 강화를



권 옹 헌

〈LG-Caltex 정유 재무본부장〉

로 많은 폐해를 가져온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국내 석유수급 안정이 무너졌을 때 석유업계는 물론 국가 경제나 국민생활이 얼마나 어려웠는가는 두차례의 석유파동시 익히 경험했다. 더구나 대외 개방을 2년여 앞둔 상황에서 국내 석유업계의 무분별하고 소모적인 과당경쟁은 국내 석유시장의 대외 종속의 위험을 초래할 뿐이며, 국내 석유업계의 대외 경쟁력을 길러 나가기 위하여는 공정한 경쟁의 틀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세째로는,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일이다.

석유업계나 관련 업계 입장에서는 자유화를 처음 겪는 만큼 경쟁과 대립이 매우 빈번할 것이며, 이러한 갈등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수렴하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산업에 대한 비전을 갖고 단기적인 이해관계의 조정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면에서 득실을 고려한 총체적인 관점으로 이해 당사자를 이끌어 가는 역할을 기대한다.

또한 정부나 업계 모두가 자유화의 운영에 익숙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와 업계간에 불필요한 오해나 마찰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업계를 대신하여 잘 조정해가야 할 것이다.

자유화와 개방화는 시대의 흐름이자 변화를 동반하는 미술사라고 한다. 석유협회가 모든 일에 있어서 능동적인 자세로 자율화시대를 맞는 혁신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길 바라마지 않는다. ☪

'97

년은 석유산업으로서의 역사적인 해다.

오랫동안 산업의 역군으로서 이 나라 경제발전의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석유산업이 시대의 요청에 따라 자유화라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석유산업 자율화라는 커다란 환경의 변화를 맞이하여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석유협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몇가지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우선, 업계를 대표하여 국민들에게 석유산업 전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려드려야 하겠다.

현재 일반 국민들은 석유산업에 대하여 거의 모르는 상태에 있다고 여겨진다. 비근한 예로, 정유사는 엄청난 규모의 누적손실을 보전받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당장의 원가마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가격구조하에서 최근

정부의 교통세 인상으로 휘발유 가격이 오르자 일반국민들은 마치 정유사가 가격을 올려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정유사를 비난하는 경우를 보아 알 수 있을 것이다.

'97년 가격자유화 시행 이후 정유업계가 추진한 가격정책이 국민들의 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재의 원가 및 정제비용을 전부 반영하지 못하고 정유업계가 상당부분을 계속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모두에게 알림으로써 석유산업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오해와 왜곡된 선입견을 하루 빨리 불식시키는 것이 석유수급의 안정과 석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라고 본다.

둘째로는, 건전한 경쟁풍토를 조성하는 일이다.

지난 30여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석유업계의 무분별한 과당 경쟁은 석유업계는 물론이거니와 국가경제적으